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김은아¹, 김종훈^{2*}

¹자이 숲 어린이집, ²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pathy Ability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Eun-Ah Kim¹, Jong-Hoon Kim^{2*}

¹Xi Forest Day Care Center

²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변인 간의 영향력은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경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내적인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아의 정서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의 공감능력 향상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모프로그림과 상담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mother's empathy ability; it also examined the mediating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89 infants and mo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verify the structures and paths among the variables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empathy ability influenced parenting behavior and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Also,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fluenced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it was observed that parenting behavior thus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empathy ability on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mother's empathy ability and her parenting behavior wer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upport and develop various parenting and counseling programs that could improve the mother's empathy ability and parenting behavior to enhance her infant's emotional recognition.

Keywords : Infant, Mother's Empathy Ability, Parenting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Effects

본 논문은 주저자의 2021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Jong-hoon Kim(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child@gnu.ac.kr

Received August 23, 2022

Revised September 28,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을 이루며, 영아기 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 발달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 시기는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는 기초를 형성하게 되므로,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하여 모든 영역에서 균형적이고 긍정적으로 발달을 이루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1].

영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경험은 한 개인이 성장한 이후의 정서반응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발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영아의 정서발달은 매우 중요하고 꼭 성취되어야 하는 발달과업이다[2]. 영아기의 정서 발달은 1세 부터 인지, 언어 능력의 발달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정서를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능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 2세 경에는 표상 능력의 발달로 양육자나 또래 등의 의도, 행동패턴, 상호작용을 기억하였다가 정서조절을 위한 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양육자로부터 분리되어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이며 정서조절 기술 및 전략의 필요성과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3].

영아기는 정서지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정서지능은 계산력, 사고능력, 기억력 및 추리하는 능력 등의 인지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또는 그런 능력을 억누르고 제한하는 능력이다[4]. 영아기에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불안·우울·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나 언어적·물리적·공격성을 나타내는 외현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아기의 건강한 정서지능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5].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이다. 영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배우는 등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6].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상호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영아가 자신의 정서상태를 인지하고 정서와 관련한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 어휘력, 이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7].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표현 능력은 영아의 정서인지와 정서표현 발달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도, 일관성 있는 규제 그리고 정적 정서표현은 영아의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표현은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8]. 따라서 영아기의 어머니 양육행동은 상호교류를 통해 영아의 경험을 확장시켜주고, 영아가 정보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영아의 정서지능 요소에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9], 어머니의 높은 공감능력은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려 하므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10].

공감능력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원적인 의사소통 분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11].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머니에 의한 유기, 방임 등 영아 학대 행위는 어머니의 공감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12]. 따라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를 양육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영아의 건강한 자기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가 영아의 욕구에 공감해 주는 것과 적절한 순간에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13]. 또한, 어머니가 정서적 공감을 취할수록 영아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정서를 조절해야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조절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14].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자녀와의 관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려주는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 왔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을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과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

서지능 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 정서지능 관계에서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에 위치한 15개 어린이집의 만 2세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이다. 설문지는 총 230부를 배포하여 200부를 수거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18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 104명(55.0%), 여아 85명(45.0%)이며, 출생순위별로는 첫째는 118명(62.4%), 둘째는 58명(30.7%), 셋째는 13명(6.9%)이다. 어머니는 연령은 만 29세 이하 11명(5.8%), 만30-34세는 57명(30.2%), 만 35-39세는 89명(47.1%), 만40세 이상은 32명(16.9%)이고, 직업은 전업주부는 85명(45.0%), 파트타임은 22명(11.6%), 풀타임은 82명(43.4%)이다.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척도는 Mehrabian, Epstein의 정서 공감척도[15], Davis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검사[16], Bryant의 정서공감척도[17]를 박성희가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18]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변인으로는 인지 공감, 정서 공감 각각 15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인지공감 .673, 정서공감 .841, 전체 .858로 나타났다.

2.2.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19]를 홍계옥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IOWA 부모양육행동 척도[2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인 지도 8문항, 한계의 설정 5문항, 애정성 8문항, 반응성 5문항 총 4개 영역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는 합리적지도 .861, 한계설정 .697, 애정성.759, 반응성 .678, 전체 .919로 나타났다.

2.2.3 영아 정서지능

영아 정서지능 척도는 Salovey, Mayer가 제안한 정서지능의 개념모형[21]을 토대로 김경희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22]를 김효진이 영아 어머니용으로 수정·보완한 도구[23]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변인은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7문항,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9문항, 자기 정서의 이용 11문항,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10문항, 성인과의 관계 5문항, 또래와의 관계 3문항으로 총 6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부정문항의 경우에는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때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875,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765, 자기정서의 이용 .879,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888, 성인과의 관계 .844, 또래와의 관계 .802, 전체 .95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처리는 SPSS 26과 Amos22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에 의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도구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공감능력, 영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인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부합도는 TLI, CFI, RMSEA, SRMR를 통해 평가하였다. 본 부합도는 연구모형의 간명성이 고려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이다[24]. 또한 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부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였고, .05 수준에서 직접 및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전체($r=-.578, p<.001$), 영아의 정서지능 전체($r=.438,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영아정서지능 전체($r=.316,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316~.578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었다.

3.2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 정서지능 간의 영향력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beta=.436, p<.001$)과 유아의 정서지능($\beta=.438,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에 19%($F=72.100, p<.001$), 영아의 정서지능에 9%($F=32.084, p<.00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서지능($\beta=.54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29%($F=12.097, p<.001$) 설명력을 나타냈다.

3.3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 정서지능의 경로분석

3.3.1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 변인 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부합도의 지수는 $\chi^2=131.216(df=46, p<.001)$, TLI=.939, CFI=.958, RMSEA=.077, SRMR=.051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관측변인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62~.91(C.R.)1.965)으로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잠재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의 부합도 및 경로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3.3.2 연구모형 분석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hi^2=131.216(df=46, p<.001)$, TLI=.939, CFI=.958, RMSEA=.077, SRMR=.051으로 나타나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인 간의관계를 살펴 보면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beta=.671,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서지능($\beta=.453, p<.001$)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9, n.s$).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양육행동을 통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간접매개 경로가 유의한지 살펴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89)

		Empathy ability	Parenting behavior	Emotion intelligence
Mother	Empathy ability	1		
	Parenting behavior	.578***	1	
Infant	Emotion intelligence	.316***	.438***	1

*** $p < .0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among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S.E.)	β	t	R ²	F
Mother's empathy ability	Parenting behavior	.523(.078)	.436	5.664***	.190	72.100***
Mother's empathy ability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442(.062)	.438	8.491***	.094	32.084***
Parenting behavior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648(.057)	.540	11.274***	.292	12.097***

*** $p < .001$

Table 3. Parameter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i>B(S.E)</i>	<i>β</i>	<i>t</i>	<i>p</i>
Mother's empathy ability → Parenting behavior	.075(.094)	.671	9.267	.000
Parenting behavior →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485(.099)	1.453	4.878	.000
Mother's empathy ability →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054(.121)	.039	.449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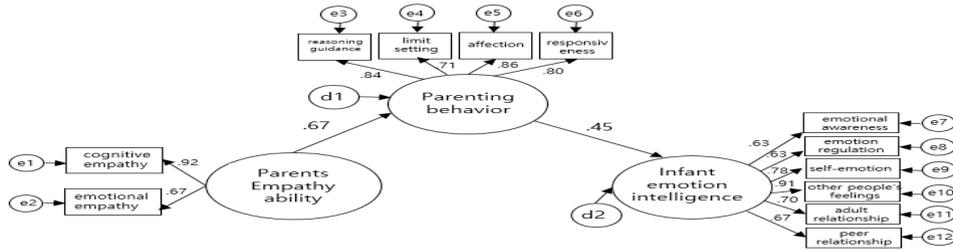


Fig. 1. Verification on the measurement research model

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beta = .304$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은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은 변인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분리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높아졌다는 연구[25],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자율적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6],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자녀와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7]와 유사하다. 또한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28]와도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영아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아의 정서와 감정의 좋고 나쁨을 수용하여 영아를

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 중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은 유아의 배려적 사고 중 하위영역인 감정 이입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공감교육활동을 통해 공감능력 훈련을 받은 어머니는 유아의 배려적 사고와 함께 정서지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30], 유아가 경험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연구[31]와도 유사하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애정과 자율이 높은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32], 부모의 수용적 양육을 받은 영아가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정서지능이 더 높다는 연구[33], 부모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34]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영아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35]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아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음으로 영아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감하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 정서지능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인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 보다 양육행동이 영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 일수록 자녀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이는 영아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영아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36],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수용적으로 반응할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이 증가한다는 연구[37],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 증세, 낮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38]는 부모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모형분석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정서지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머니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양육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영아의 정서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양육현장에서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는 경남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많은 지역

에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져 단편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영아 양육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개인적인 차이도 존재하므로 심층면접, Focus Group Interview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H. Yi, O. K. Lee, "Evaluation of Infant / Toddler Programs in Korean Day C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1, No.1, pp.121-140, 2000.
- [2] G. S. Seo, "A Study on Meaning of Two-year-ol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During the Interaction with Their Teache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67, pp.93-118, 2011.
- [3] Berk, L. E, "Infants and children: Prenatal through middle childhood", SAGE Publications.
- [4] Cherniss, C., Extein, M., Goleman, D., & Weissberg, R. P. "Emotional intelligence: what does the research really indicate?". *Educational Psychologist*, Vol.41, No.4, pp.239-245, 2006.
- [5] J. H. Park, h. n. Song, "developmental of a program for improvi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gnitive regulation",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5, No.2, pp.49-72, 2010.
- [6] J. K. Kim, E. H. Kang, "Self-regulation According to Preschoolers' Gender and Parent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3, No.2, pp.81-96, 2017.
- [7] G. Gwak, M. Kim , E. Han,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n Infanc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6, No.6, pp.179-187, 2005.
- [8] J. E. Choi, S. Y. Le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haviors and Preschooler'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orean Society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33, No.3, pp.151-171, 2017.
DOI: <https://doi.org/10.33770/iebd.33.3.8>
- [9] Leiberg, S, Anders, S, "The multiple facets of empathy: a survey of theory and evidence", *Progress in Brain Research*, Vol.156, pp.419-440, 2006.
- [10] E. Jung, S. Lee, "A Qualitative Study on the Empathy of Infants in a One-year-old Classroom",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5, No.5, pp.1-22, 2019.
DOI: <https://doi.org/10.14698/JKCCE.2019.15.05.001>
- [12] Y. Jo, & N. Chung, "Trends in Research on the

- Impacts of Parental Empathy o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1, No.4, pp.915-941, 2009.
- [13] Winnicott, D. W, “A clinical study of the effect of a failure of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on a child’s mental functio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46, PP.81-87, 1965.
- [14] O. J. Lim, “Influence of Father’s and Mother’s Playfulness, Empathic Emotional Reaction, and the Child’s Playfulness on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Examining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9, No.6, pp.113-130, 2018.
- [15] Mehrabian, A., & Epstein, N. A.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40, No.4, 523-543, 1972.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1972.tb00078.x>
- [16]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2-19, 1980.
- [17] Bryant, B.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53, No.2, pp. 413-425, 1982.
DOI: <https://doi.org/10.2307/1128984>
- [18] S. Park, Empathy,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sa, 1994.
- [19] Carey, W. B., & McDevitt, S. C. “Stability and changes in individual temperament diagnose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17, No.2, pp.331-337, 1978.
DOI: [https://doi.org/10.1016/S0002-7138\(10\)60096-9](https://doi.org/10.1016/S0002-7138(10)60096-9)
- [20] K. O. Hong, Relationships between Patterns of Attachment,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 among Kindergarten Children.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21] Mayer, J. D., & Geher, G.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Vol.22, No.2, pp.89-113, 1996.
DOI: [https://doi.org/10.1016/S0160-2896\(96\)90011-2](https://doi.org/10.1016/S0160-2896(96)90011-2)
- [22] K. H. Kim,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9.
- [23] H. Kim, The Effects of 「Mother-Infant Play Program」 on Infant’s EQ and the Mother’s Satisfaction Rate of Role-playing,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5.
- [24] Hu, L. T., Bentler, P. 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25] H. Byun, J. Kim, M. Lee,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Empathy of Early Childhood Fathers on Coparent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3, No.2, pp.141-160, 2018.
- [26] N. Kwon, The Effects of Mothers’ Empathy and Parenting Attitude on Soci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9.
- [27] M. Chung, M. J. Kim, B. Yee, “The effect of mothers’ empathy and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playfulnes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4, No.1, pp.101-122, 2015.
- [28] A. Jo, N. SHIN, “Influences of Maternal Empathy on Children’s Caring Behaviors via Autonomous Parenting.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Vol.25, No.1, pp.23-33, 2021.
DOI: <https://doi.org/10.36357/johe.2021.25.1.23>
- [29] M. Oh, The Effects of Mother’s Empathy on Children’s Caring Thinking, Peer Competence, and Metacognition,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s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1.
- [30] Wo. J. Choi, I. “The Effects of Empathy Education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ing Thinking”.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19, No. 3, pp.189-206, 2018.
DOI: <https://doi.org/10.22154/jcle.19.3.8>
- [31] E. Nam,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Empathy to Parents on Peer Relationship and Relation of Teacher :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14.
- [32] A. G. G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and the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3.
- [33]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ttachment Stability an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Care*, Vol.4, No.2, pp.113-127, 2004.
- [34] Y. R. J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stering attitude of the parents and infant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2005.
- [35] S. Son, Y. Yoo,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Attitude on Young Children’s Optimism: A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2, pp.183-207, 2014.
- [36] M. Kang, The influence of mother’s infant-centered educational view on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
- [37] H. Kim, J. Kim,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Toward Young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on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Playfulness", *Open Education Research*, Vol.20, No.3, pp.71-92, 2012.

- [38] J. Choi, Cortisol Levels of Day Care Children: Relations with Day Care Characteristics, SES,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2008.

김 은 아(Eun-Ah Kim)

[정회원]



- 2021년 8월 :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문학석사)
- 2017년 4월 ~ 현재 : 자이 숲 어린이집 원장

<관심분야>

영아발달, 교사교육

김 종 훈(Jong-Hoon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철학박사)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연구방법론